"병원 가기 두려워"…광주·전남 병원발 코로나 확산 공포

광주기독병원·화순요양병원 이어 북구 요양원서도 집단감염 의료진·환자·보호자 등 확진 속출에 인근지역 인적 끊기고 적막 200m 가량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마을 주민들 불안감 커져

종합병원과 요양원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병 원 곳곳으로 번지면서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 다. 특히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갖춰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서 의료진·환자·보호자 등의 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감염 확산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포와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 주시 북구 민간 요양원인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에 서 16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현재 입소자 12명과 종사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요양원 62명의 입소자 대부분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 이라는 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도 높은 상 황이다. 3층 입소자 28명 중 16명이 감염된 만큼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인지 가뜩이나 한적한 요양원 인근은 아 예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출입통제 안내 문' 입간판이 세워진 요양원 너머 평소 환자들이 이 용하는 요양원 내 야외 공원시설 이용자도 전혀 없 었다.

요양원 인근 마을 주민 김모(68)씨는 "오전 9시 께, '마을 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마을 방송을 들었다"면 서 "병원조차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마을까지 번지는 건 더 빠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양원이 위치한 수곡마을 이현팔 통장은 "우리 마을에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아 요양원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마을 사람들을 아예 나오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수칙을 준수해야하는 의료시설에서 집 단감염이 속출하는데 따른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당장, 요양병원에서 200m가량 떨어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서 확진자가 나와 불안해하는 학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기독병원 주변도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분위 기가 감지됐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지난 20일부 터 이날까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간호조무 사(광주876번)를 시작으로 의료진, 환자 3명, 보 호자 1명 등 벌써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찾은 광주기독병원 앞 선별진료소에는 추운 날씨에 발을 구르며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 보호자 들의 긴 줄이 섰다.

환자 보호자라는 한 여성은 "불안한지만 남편이 어제 수술을 마친 탓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도 "병원을 찾는 일반 외래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지역 한 요양병원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확 진자 15명이 쏟아져 나왔다. 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대응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남대병원도 의료진들의 미흡한 방역 대책 등이 거론되면서 광주지역 코로나 확산의 고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병원 에서조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진료를 꺼리는가 하면, 병원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병원 근처에서 30년 간 살고 있다는 김모(75)씨 는 "아내가 입원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고 해, 얼굴을 보러 가려다 포기했다"면서 "병원가 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병원발 코로나 공포가 확산 하면서 인근 식당들도 보호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힘겨워하고 있다.

>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인 3역 하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6년만에 유죄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처벌 범위 넓혀

또래인 척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미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 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 죄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 음)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 속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채팅 앱으로 알게된

당시 14세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 년'이라고 거짓말해 온라인상 연애를 하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B씨에게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 하는 여성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나도 A 씨를 좋아한다. A씨를 좋아하면 무엇이든 해야 한 다'고 도발하는가 하면, '너무 힘들다. 나랑 헤어 지기 싫으면 그 여성 요청대로 '내 선배'와 성관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B씨를 종용했다.

A씨는 결국 말을 듣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B씨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 지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속아 성관 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행위 자체에 대해 속은 것 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 각, 부지를 의미할 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

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8월, 아동·청 소년이 외관상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 관계를 했어도 타인의 기만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 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를 일으 킨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 있고 간음행위에 이 르게 된 동기,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 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 상으로 한 간음죄 처벌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 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 으로 되돌려보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체육회 6곳 선수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

노동법 위반 40건 적발

광주시체육회를 비롯, 실업팀을 운영하는 지방 체육회들이 선수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 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는 광주시체육회 등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지 방체육회 6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실시, 4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경주시체육회 소속 철인 3종 선수였던 고(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한 달 간 근로 감독을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3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10건) ▲연차휴 가 수당 미지급(10건) ▲취업규칙 미신고(3건)

▲퇴직금 미지급(1건) 등이었다.

체육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선 수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훈련하거나 시합을 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3억9200만원 이 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임금도 지급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3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 과했다. 정부는 실업팀 선수들에게 원칙적으로 각 종 수당을 주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년 2월쯤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체육회 선수들 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1년 광주지역 생활임금, 전남보다 높아

2021년도 광주지역 생활임금이 전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1년도 생 활임금은 시급기준, 광주시와 동·서·남·북·광산구가 1만 520원으로, 전남도(1만 473원), 여수 9630원, 해남 9670원, 목포 9370원 등보다 많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 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하기위해 도입 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시와 5개구, 전남도 와 여수, 목포, 해남 등이 도입해 운영중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 자

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 적용받는데, 광주시와 5개구의 내년도 생활임금 은 최저시급(8720원) 대비 120.6%, 전남도는 120.1% 수준에서 책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광주시의 경우 219만 8690 원, 전남도 218만 8850원, 해남 202만 1030원, 여 수 201만 2670원, 목포 195만 8330원 등으로 광 주와 목포는 24만 350원 차이가 난다.

매 각 물 건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자 화장실 몰카' 개그맨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 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 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5년간 신상정보

비고

최저매각가격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 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박씨에게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 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 형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둘 <경매 1		의 표시 및 매각조건 *@R코	 드:법원경0	배정보 웹으로 접	미종. 1 1속됩니다. 미군
사건번호	물건 번호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8768	1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60, 103동 14층140 2호 [화정동,신동아아파트] 84.94㎡	아파트	176,000,000 176,000,000	
2020타경 9563	1	서구 상일로53, 301동 2층201호 [쌍촌동, 쌍촌동호반리젠시빌] 84.7555㎡	아파트		현황조사보고서[2 020.8.13.작성]상 관리비약1,680,00 0원미납된상태
[단독주	택,	다가구주택]			
2020타경 67408	1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411 271㎡ 화순군 춘양면 용회로 81-4 48.2㎡ 제시외 창고 등 27.5㎡[반파된상태로주택기능상실 ,골함석지붕으로공부와차이있음]	대 단독주택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지적경 계현황과 불일치, 측량의필요성있음
[대지/임	J 0‡	/전답]			
2020타경 10389	1	광산구 송정동 265-1 673㎡ 동소265-14 129㎡[이동가능컨테이너소재] 동소 265-17 630㎡	대 대 대		일괄매각.목록3도 시계획시설[도로] 저촉
2020타경 67408	2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산40 47405㎡[공유 자이화훈지분10/85전부.인근주민의탐문조 사에의하면분묘1기가소재하나출입로가없어 육안확인곤란함]	임야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 한
[상가/도	2 11	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9167	1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4 804㎡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700 180㎡ 부속건물 소매점[부속창고]83.5㎡ 제시외 창고 등 1 21㎡[현황복층.㈜도운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금92.500,000원위해유치권신 고,채권자아이에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 로부터위유치권대해배제신청서제출됨]		179,903,000 179,903,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소 재 지 및 면 적 [㎡] [단위:원] [자동차,중기] 사용본거지: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건설기계 30,000,000 보관장소:평동주 020타경 [와우리,134-27영진산업] 등록번호:전남03 30,000,000 차장[광주광산구 70305 나3209 기종:로더 연식:2018 동곡로430] [기타]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3-7 620㎡ 제시외 ┃양어장 1,265,446,120 일괄매각.제시외 1,265,446,120 건물포함.공장및 동소 13-8 956㎡ 제시외 기계실 17.6㎡ 양어장 광업재단저당법제 동소 13-9 778㎡ 제시외 펌프실 9㎡ 6조기계기구포함 동소 13-13 270㎡ 제시외 통로 등 39.2㎡ 수목포함.목록12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85 98.48㎡[음식점 주택 및외지상에이동기 부속건물 75㎡ 능한비닐하우스매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13-15 550㎡ 제시외 양어장 각제외.기계기구 중관정[기계기구 목록6-4]매각대성 2020타경 동소 13-18 312㎡[매각외제시외건물[숙소4]답 아닌토지[구림리 8119 0㎡,식당창고30㎡,차양5.5㎡,사무실 40㎡ -5,13-17,89-11] 소재.목록4,8이동 가능한저온창고및 동소 38-1 88㎡ 대 냉동창고매각제외 목록8,11전용허 동소 40 178㎡ 가없이토지현황변 동소 41-1 120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85-5 1층41㎡ 부속 단독주택 경되어향후원상회 건물 부속사16.2㎡[현황멸실상태] 복발할수수있는기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41-6 227때 능성있음[동화면 동소 43-1 69㎡ 양어장 장사실조회회신]

사건번호 물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번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 ·용우사가 인사업병합 제140소에 의한 무전배우신고를 한 경우 그 배우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배각기일에 배우모등당의 미합으로 필요 =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통산의 매략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기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매각기일 : 2021. 1, 13. [수] 16:00 매각경기일 : 2021. 1, 13. [수] 16:00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매각방법). 배덕성) 답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충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충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충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월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랑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합찰봉투의 무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월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랑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활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입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 가입규칙는 본 에 선거되었다고 모르답다 지사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9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점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차인이나, 사업 자동독신청을 마친 입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접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밥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당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마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작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건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하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요염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하다. ·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물들에서 제되답되다. |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합니다. 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통하가 신청이나 향고, 대금각액신청이나 순해방수의 취급를 할 수 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